

# 말씀의 샘

## 믿음을 화합하라 <히브리서 4:1~11>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1~11절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같은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 6절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아니함', 그리고, 7절 '듣고 마음을 강박케 함'이 바로 그 이유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도 동일하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 3:12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18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나 19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 이 세가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동일하게 모아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지 않는 죄가 큰 죄인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에 들어가야 할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세 가지 이유, 결국 다 같은 이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한 표현을 선택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 4:2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화합)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화합하다' 라는 부분에서 **"화합(결부)하다"**라는 표현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συνκεράννυμι"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σιν(함께) + 케란νυμι(κεράννυμι)(액체를 혼합하다. 융해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녹이는 것이 믿음을 화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 하겠습니까?

**첫째, 믿음을 화합(융해)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물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맑은 물에 무엇이든 잘 녹는 것을 압니다. 무엇이 많고 뽀뽀하면 그 안에 무언가를 또 녹이기가 어렵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의 심령이 복잡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융해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어린이가 같이 투명하고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맑고 투명하여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융해시킬 수 있는 그들의 심령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군대에서 사용할 수 없는 '페인트'를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유성페인트 중에서 색깔을 칠할 때, 신너를 넣고 묽게 해서 다른 색 페인트를 섞어 사용하는데 이 페인트의 특징은 아무리 신너를 넣고 묽게 하려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묽어지지도 섞을 수도 없는 것을 '페인트'라고 부릅니다. 그건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섞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칠할 수도 없는 페인트입니다. 마치 페인트처럼 우리의 심령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도 더 이상 묽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심령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심령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신이 여러분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영려, 짜증, 의심, 실망,... 뽀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후 4:3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요?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화합(융해)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을 이 시간 정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리워진 무언가를 벗겨주시길 축원 드립니다.

**둘째, 믿음을 화합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끓는 물 같아야 합니다.**

끓는 물과 같은 맑은 마음은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흔히 겪는 일들 중에, 차가운 아이스 커피에 꿀이나 설탕을 넣으면 쉽게 녹지 않지만 뜨거운 커피에는 금세 무엇이든 녹아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뜨거운 물과 같을 때 어떠한 말씀이든 거부감 없이 쉽게 융해되고 화합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이 쉽게 녹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저의 것임이요'라고 팔복의 첫째 복으로 '심령의 가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끓는 마음이 가장 근본적이고 첫째 되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어떠한 약속이든지 기다렸다는 듯 자기의 것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행 17:1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씩이나 걸린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녹일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심령이 준비될 때까지 축복이 보류되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서 녹아질 수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더 빨리 앞당겨질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움켜쥐고 한번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 졌나, 언제부터 내 마음이 이렇게 식었나, 믿어지지 않는 내 강박한 마음을 치면서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앞에 어린 아이처럼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또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을 화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2016. 6. 26 주일 예배 이 강화 목사

## 2016. 7. 3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요한계시록 8:1~6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내일을 위해 기도하라"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적 삶이 있는  
**두란노 교회**

